

김해, 대한민국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 새롭게 출발하다

김해시는 2021.11월 UCCN 가입한 새내기 회원도시로 이듬해 3월 창의도시 지정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였습니다. 대신 국내 창의도시 모두(10개 도시)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세지를 전해왔고, 유튜브 실시간 송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창의도시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2022. 8월 창의도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로 창의도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첫 회의에서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태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경 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창의도시 선포식

창의도시와의 교류, 한 걸음 한 걸음

2022.4월 강릉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년 UCCN 미식 분야 가입추천도시)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 10월 양 도시의 대표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교류하였습니다. 강릉커피축제에서는 (사)김해도자협회에서 도자기 전시·판매와 함께 도자기물레체험 행사를 진행하였고,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서는 강릉커피로스팅클럽과 (유)커피박공장에서 강릉커피 시음행사/판매,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원거리(차량 편도 5시간 소요)로 인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양 도시의 도자기와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릉커피축제 - 김해도자기 전시·판매(위)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강릉 커피 판매(아래)



“김해시-대구시-광주시” 협업공연

2022. 8월 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에서는 김해시, 대구시(음악 창의도시)와 광주시(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함께 축하공연을 하였습니다. 광주 미디어아트 작가의 기획에 따라 연출된 무대에서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과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이 협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김해 진례면에 밀집된 도예 관련 시설

김해 진례면에는 도예와 관련한 미술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판매관, 박물관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으며, 60여 개의 도예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1)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2006년 개관한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입니다. 클레이아크란 흙(Clay)와 건축(Architecture)의 상호 관계적 협력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미술관에는 전시관과 체험관 등이 있어 관람객들이 작품 감상 후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미술대회, 전시 연계 교육 등 각종 행사와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창작센터는 건축, 도예, 디자인,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시각 예술



가에게 건축도자 또는 도예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칠)공실, 석고실, 소성실 등 작업공간과 게스트룸, 주방 등 생활공간을 갖추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술관 홈페이지(<http://clayarch.org>)에서 국내외 입주 작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2)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도자전시판매관에서는 도예인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도예인 교육과 컨설팅,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해외판로개척, 작업환경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자소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관은 온·오프라인 통합판매관을 운영하며, 지역작가의 작품을 초대·전시할 뿐만 아니라 X선형광분석기, 이동식 3D광학스캐너 등 개인적으로 보유하기 힘든 장비를 R&D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2009년에 한국 최초의 분청도자 전문전시관으로 개관하여 김해 도자역사와 문화를 전시·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분청사기 유물 및 현대 분청도자기 전시, 지역작가 초대 전시와 함께 전통가마불지피기, 시민도예대학 등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전통 손기술의 현대화 작업, 리빙테크사업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는 김해 전통의 손기술을 가진 장인과 예술가를 발굴하여 현대적인 실용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리빙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도예와 철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금속공예 등 김해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들이 김해의 문화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판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해의 10색을 활용한 머그잔과 화포천에 서식하는 100여종의 동식물을 담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김해 창의도시팀